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1월 23일(일) 제1565호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제55회 메시아 연주회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극장

제55회 메시아 연주회가 오는 12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세종대극장에서 막 오른다. 메시아 연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매년 12월 열리는 초교파적인 대규모 개신교 연합합창 행사다. 올해로 61주년을 맞았다. 올해 연주회는 메시아연주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와 카리스프로덕션 주관, CGN이 후원한다.

제55회 메시아 연주회에는 60여개 한국 교회에서 모인 찬양대 30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리프즈 플라이어즈 그룹과 협연하고, 홍정표 교수가 지휘한다. 소프라노 홍혜란 교수, 콘트랄토 오스틴킴, 테너 최원휘 교수, 바리톤 이승왕 교수가 솔리스트로 출연하고, 챔발로에는 남예셀, 오르간에는 민혜원이 협연을 한다. 공연은 인터미션 포함 총 120분 진행된다. 7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부터 관람할 수 있다.

공연 티켓은 온라인(인터파크, 세종문화회관 티켓 시스템)으로 구매할 수 있다.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이다. 두란노 서점과 인터파크(온라인)의 온누리교회 교인 할인을 이용해서 구매하면 30% 할인해 준다. 인증번호는 20251204이다.

공연 문의: 02-588-9954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하나님 나라 새 일꾼을 세우는 '2025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11월 29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171명(명예권사 4명, 권사 167명), 안수집사 469명(남 160명, 여 309명)이 임직된다(11월 23일 기준).

권사·안수집사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하거나 불참하면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다.

임직예배 당일 교회 주차장은 4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양재 주차빌딩(양재역주차장, 서초구 강남대로221)을 이용해야 한다(비용 개인 부담). 이

날 정오부터 오후 4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양재역과 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지난 9월 6일(토) 개강한 '임직자스쿨'에서 훈련받았다. 임직자스쿨에서는 '선교적 교회(이재훈 위임목사)',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이기원, 이기훈 목사)', '부르심과 헌신(강부호 목사)', '행복한 가정과 리더(박성덕 소장, 김성목 장로)', '안수집사의 실제(신무환 장로)', '권사의 모델(조호영 목사)

', '일터영성(정진호 장로, 이백용 장로)', '세계를 품은 리더(김홍주 목사)', '전도(장경문 장로)', '교회론과 목회철학(박종길 목사)' 등을 주제로 훈련이 이어졌다.

또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독서보고서 등 개인 영성 훈련과 러빙핸드, 주차 봉사, 성찬 포도즙 담그기 등 봉사활동도 병행했다. 온누리교회 협력기관(사회선교본부 기관, 온누리복지재단, NGO 더멋진세상, CGN 등) 방문도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보스톤온누리교회 예배당 이전

11월 16일 입당 및 임직 감사예배 드려



보스톤온누리교회가 창립 22년 만에 새 예배당으로 이전했다(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이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입당 및 임직 감사예배를 지난 11월 16일(일) 오전 10시 보스톤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보스톤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성도 550여 명

이 참석했다.

입당 및 임직 감사예배는 성인 1,2부와 차세대 전체 연합예배로 드렸다. 송태민 장로 대표기도, 주드립 성가대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임직식, 김철진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에' (막 2:18-22)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보스톤온누리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전한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을 더욱 새롭게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2025 엔젤트리' 사연 게시

'2025 엔젤트리' 사연을 11월 22일(터)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게시한다. 올해 엔젤트리에는 서빙고 1,744건, 양재 1,033건(19일 기준)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연이 성도들과 모두 연결될 때까지 게시한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는 게시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2025 엔젤트리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데스크에서 사연을 뽑고, 사연 속 이웃을 위해 기도한 다음, 선물을 보내면 된다. 선물은 5만 원 이하(옷,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엔젤트리 사연과 연결되면 각 캠퍼스에서 개인 연락처로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 준다.

문의: 02-3215-3434

/ 박지혜 기자

차세대 '2026 교사사명교육'

12월 4일부터
매주 목, 토요일 온라인

차세대사역본부에서 '2026 교사사명교육'을 실시한다. 신입 차세대 교사가 대상이다.

2026 교사사명교육은 목요일과 토요일로 나눠서 진행된다. 목요일 12월 4일(목)부터 26일(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일 12월 6일(토)부터 27일(토)까지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교육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은 아홉 지파 반의 땅 분배가 끝나고, 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귀환한 이후 대략 10년에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1~4절).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기에 더욱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유언을 남깁니다. 23장은 ‘실로’라는 곳에서 지도자들에게 구두로 남긴 유언이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겔’에 모아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재확인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23장과 24장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싸우시고 모든 적을 물리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을 갖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는가?’ 하는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 다.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난 시간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셨던 사랑, 절망 중에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둘째,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 한 명이 천 명을 내쫓아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번 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두번 째,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족속과 뒤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세번 째,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붙들라’는 표현을 개정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라’고 번역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친근’이라는 단어는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딱 붙어 있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울무에 걸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셋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입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10~11절).

여호수아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직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왕래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은 너희에게 밋이 되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가시와 채찍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반복합니다.

첫번 째, “죄악을 단호하게 자르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울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너희가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타락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별을 해야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하기 때문입니다. 두번 째, “죄는 가시와 채찍이 되어 너희의 축복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당장에는 경제적 이득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울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상은 이스라엘의 함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달콤하게 다가오는 죄와 쾌락은 울무와 함정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세번 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회색 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한 명이 천 명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붙잡고,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죄악이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도와 주시니 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라는 고백을 한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히 13:6) 여러

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

넷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14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악한 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경고를 하면서 유언을 마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동사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 ‘가서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여호수아는 ‘가져 말라’고 말합니다.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딴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곳, 그래서 몰래 가는 곳, 내 양심이 늘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 내 마음과 시간, 재정, 영혼을 빼앗는 유혹의 곳은 어딴습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되고,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인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잠 3:5~6).

패배보다 승리가 많은 삶, 슬픔보다 기쁨이 많은 삶, 절망보다 소망이 많은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의 품에 안길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고통을 겪게 될 아기라면 낙태해야 할까?

낙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 보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낮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럴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2017년 ‘CBS’는 아이슬란드에서 다운증후군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거의 100% 낙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아이가 불리하게 살 거나 고통스러울 거라면 낙태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 대화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인에게 하지 않을 일을 태아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다운증후군은 낙태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 보자.

한 지역 마트에서 일하는 다운증후군 십대 청소년을 사회가 죽여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십대와 태아의 차이가 무엇인

가? 나이뿐이다. 다운증후군이든, 사지가 없든, 어떤 다른 신체적 상태이든,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 존재 자체’에 근거하며, 나이에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성인에게 하지 않을 일을 신체적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기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원칙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대신 “그 아이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라는 말로 바뀐다. 그것은 정의롭지도, 자비롭지도 않다.

셋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통을 멈추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삶은 힘들다. 누구에게는 그 여정이 더 고통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더는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떤 질병이 ‘삶을 끝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그 결정을 출생 이전에만 허락한다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은가? 만약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닳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연약한 이를 보호하고,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것이 모두에게 훨씬 좋은 길이다. 아기가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낙태가 옳은지 고민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

“특정 질병을 앓는 성인을 죽이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아기도 낙태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약한 이를 돌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통을 멈추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그 해답이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통을 멈추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그 해답이다.”

돌본다. 오늘날 세상은 ‘따돌림 반대’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낸다. 학교마다 캠페인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겉모습이나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낙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이

도전 과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삶의 질이 훨씬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겉보기엔 건강해도 삶이 비참한 사람들도 많다. 삶 자체는 하나의 ‘선물’이다. 누군가의 고통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예배와 예배공간

예배, 하나님을 향한 공간의 고백



한동욱 장로
(분당B공동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함께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시간은 특별히 구별된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좁은 세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배는 그래서 단순한 예식의 시간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흐려진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리이자, 세상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창조주 앞에서 새 질서를 찾는 순간이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

예배는 일상에서 소모된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행위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사건이다. 예배는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다시 정렬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예배는 점점 ‘공연’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 시대적 문화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영상과 음악, 무대 연출이 익숙한 세대가 예배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형식을 요구한다. 교회는 이러한 세대를 위하여 점점 더 역동적인 표현과 시각적 요소를 도입한다. 또 일종의 신앙 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교회마다 ‘좋은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제 공해야 한다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된 바도 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회중 만족도’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점점 일종의 감동 제공 프로그램이 될 뿐이다. 여기에 목회자들의 목회 성과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교회 성장 혹은 유지란 현실적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강렬한 예배는 즉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성공한 예배’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 예배는 점점 ‘드림’에서 ‘뽐’이 되어가고 있다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다. “오늘 예배 좋았어?”라는 말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라는 말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배가 인간의 감정 충족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조용히 이동한다. 현대 예배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바로 이 미세한 이동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감동하였는가?”

현대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 중심성’이다. 예배의 깊이를 눈물의 양이나 분위기의 뜨거움으로 판단하기 쉽다. 물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표현 방식이다. 하지만 성경

에서 예배는 언제나 감정보다 진리 위에 선다. 예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정이 중심이 된 예배는 결국 국 신앙이 감성 소비로 전락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진리가 중심이 되면 감정은 그 진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

예배공간은 교회의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낸다. 공간은 정직하다. 오늘의 예배당은 공연장을 닮은 구조가 점점 많아진다. 무대와 객석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고, 조명과 음향 장비는 공연 시설의 형태를 띠며, 회중은 참여자보다는 관람자 위치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예배를 ‘공동체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고, 교회의 신학과 세계관은 그 형태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예배를 공동체의 고백으로 본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배는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며, 공간은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설교자와 회중이 동일한 중심을 바라보게 하고, 빛은 무대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를 비추며, 배치는 공연 관람이 아니라 말씀과 응답의 흐름을 돕는 방향이 여야 한다. 그럴 때 예배당은 말 없는 신학이 되고, 공동체는 공간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은 물질세계를 멀리하지 않으신다. <창세기>의 창조 선언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선언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인간을 부

르신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땅의 먼지를 밟으셨다. 그렇기에 예배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자리이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다. 자연광이 예배당에 스며드는 순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집회장이 아니라 ‘은혜의 장’이 된다.

예배의 위기는 예배가 끝난 후부터 드러난다. 주일의 고백이 일상의 삶과 이어지지 않을 때 신앙은 점점 열어지고, 예배는 일주일 한번의 일상적 종교의식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과 삶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당은 세상을 향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웃의 아픔이 기도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나눔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의 웃음이 들릴 때, 예배는 다시 살아난다.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예배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예배공간 또한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된다. 무대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조명은 연출이 아니라 계시를 돕는 빛이 되며, 공동체는 다시 하나의 몸으로 세워진다. 건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간다.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향했다. 난민이 된 그들은 말로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 소중한 이들을 잃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다. 바로 그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최베드로 선교사다. 그는 폴란드에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품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0m7@onnuri.org

최베드로 선교사의 사랑으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들과 함께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는 사역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최베드로 선교사의 말에서는 예수님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자연스레 전해졌다. 그의 행복한 선교의 뿌리가 궁금했다. 처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저는 1992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러시아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5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역의 큰 열매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가 아홉 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은 결심은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휘자를 꿈꿨다. 그 꿈을 이루려고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어머니의 사역을 돕거나,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할 때면 주변에서 “신학교 갈 생각은 없냐”는 질문을 듣곤 했지만, 그때마다 ‘나보고 사역자가 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다.

“어느 날이었습니. 한 선교사님이 제게 ‘베드로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잠겨있던 제게 그 선교사님이 ‘정말 알고 있다면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대화 이후 최베드로 선교사의 기도제목은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 살기 원하신다면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단 하나였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친할머니를 통해 그 기도응답하셨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친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집안은 불교였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내일 허리 수술을 받는데, 혹시 잘못되면 제 종교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면 바로 교회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자라서 한국어가 서툴고, 제 전화번호도 몰랐던 분이셨는데, 정말 어렵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88세에 세례를 받고, 93세에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겼다. 최베드로 선교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 다음



최베드로 선교사(왼쪽 사진 우측에서 세 번째)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고 있다.



기도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정을 받아 주기를 구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생신날 함께 식사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신학대학원 진학을 제안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휘자 가운을 벗고 목사 가운으로 갈아입더니 단상에서 설교하는 환상을 두 번이나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4년 한국에 들어와 군 복무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가 선교할 꿈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연장 그리고 완전한 정착

“누가 저에게 왜 이곳에 정착했냐고 묻는다면, 어떠한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베드로 선교사는 2021년 목사 안수를 받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온누리M미션에서 이주민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러시아 MK(선교사의 자녀)로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어 예배공동체와 미디어팀을 섬겼다. 그러다 OSOM(장기선교사 훈련) 32기로 Acts29비전 빌리지에 들어갔다. 그런데 선교 훈련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다.

그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로 백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온누리M센터 센터장 노규석 목

사가 급하게 폴란드로 향했다. 같은 해 4월, 현지에서 노 목사가 최 베드로 선교사에게 ‘우크라이나 피난민 사역’을 제안했다.

“상황이 급박해서 파송식이나 파송장도 없이 OSOM 32기 수료하고 19일 만에 아내와 함께 위탁 캐리어 두 개와 기내용 캐리어 두 개만 챙겨서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화요일에 도착했고, 그 주 토요일부터 난민수용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난민수용소에서 머물던 이들과 함께 2022년 7월 17일, 첫 예배를 드렸다. 당시에는 이름도 없던 작은 예배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가 최베드로 선교사 가정의 폴란드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처음에는 6개월 단기선교를 계획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누리M미션의 권유로 9개월을 추가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가정 스스로 이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본부에서도 우리 가정을 TIM(두란노국제선교회) 소속으로 전환하고, 폴란드에 정착해서 사역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사랑이 최베드로 선교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최베드로 선교사가 폴란드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3년 5개월이 지났다. 그사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13번 방문했고, 고아원 아이들 10명, 유아 2명, 성인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자도 12명이나 된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앞두고 있다. 바르샤바 보주미르교회, 우즈 보주미르 고아원 교회도 세웠다.

복음 말고는 능력이 없음을...

최베드로 선교사는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상황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확신한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만날 때면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요청하고, ‘선하신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복음 말고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동역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주미르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 많아서 함께 일할 직원이 절실합니다. 사역에 열정이 있는 귀한 청년들은 많지만, 폴란드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기에 사역자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간사님을 채용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아원 아이들이 하나님의 양자 됨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중독에서 자유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 1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딸 소예의 면역력과 저희 부부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 하나은행 573-90009-578237(최베드로)



사진은 '제4회 블레싱 교토'.

찬양사역팀, 일본을 찬양으로 물들이다

제4회 블레싱 교토, 제1회 블레싱 요코하마 개최

온누리교회 예배본부 소속 찬양사역팀이 지난 11월 16일(일) 오후 4시 일본 교토에서 '제4회 블레싱 교토'를 요코하마에서 '제1회 블레싱 요코하마'를 개최했다.

제4회 블레싱교토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 열렸다. '주향한찬양사역팀'과 '뮤지컬찬양사역팀'이 연

합해서 집회를 이끌었다. 행사 전날인 15일에는 교토 명소인 '가모 강가'에서 버스킹을 했다.

제1회 블레싱 요코하마는 시미즈 가오카교회에서 진행했다. '주경배 찬양사역팀' 주축으로 찬양집회를 하고, 17일에는 해안교회에서 버스킹을 했다.

남윤창 장로(찬양사역공동체)는 "찬양과 문화사역을 통해서 일본을 찬양으로 물들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GN, 2026 달력 출시

말씀 달력 및 성경통독 달력

한국로잔과 CGN이 함께 말씀 달력 '이천이십육년의 기도'를 출시했다. 이재훈 위임목사 등 12명의 목회자가 매월 주제 말씀을 선정했다. 가격은 1만6천 원이다.

CGN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일일-통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2026

성경통독 달력'도 판매한다. 가격은 5천 원이다. 말씀 달력과 성경통독 달력 구매는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이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QR 코드 참고).

문의: 02-796-2310(두란노서점)



온누리 선교, 지난 40년 그리고 미래

온누리 선교컨설팅, 리더십 및 성도 95명 참석

2025 온누리 선교컨설팅을 지난 11월 18일(화)과 19일(수) '온누리 선교, 지난 40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마임비전빌리지에서 했다. 온누리교회 목사, 선교사, 장로 등 95명이 참석했다.

이번 온누리 선교컨설팅은 개회예배, 주제발표, 패널토의, 소그룹토의, 폐회예배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1일차(18일) 주제발표는 이대행 선교사, 정재호 집사, 김홍주 목사, 최성민 목사, 주영창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양윤석 집사가 했다.

2일차(19일)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기조 강연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선교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융합사역을 통해 선교적 영성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 촉매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김형일 집사, 박명신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박태성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가 했다. 선교실행계획 발표는 조대식 장로, 총평은 장광열 장로가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윤정 작가 초대전 '빛이 있으라'

온누리아트비전에서 외부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12월 9일(화)까지 김윤정 작가 초대전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를 개최한다.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광야의 기도, 빛이 있으라 등 작품 40여 점을 전시했다.

김윤정 작가는 2025 전국공모 모란현대미술대전 입상, 제38회 전국공모 성산미술대전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문의: 010-2321-6494

'Joyful Christmas' 크리스마스 파티

20대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결혼가정문화세미나 'LOVE DIVE'에서 'Joyful Christmas-Holy design'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한다. 12월 6일(토) 오후 3시 대학로 이룸 3층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이번 'Joyful Christmas' 파티에서는 김선우 대표(스토리앤스타일)가 '그리스도인다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스타일링'을 주제로 강의한다. 20대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9090-6746

/ 홍하영 기자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2025년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지난 11월 21일(금) 양재 강남B, 강남C, 부천 믿음, 대전 남누리, 인천 온유, 화평공동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일) 제주온누리교회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하단 표 참조).

올해 하반기에는 '온누리사역축제(OMC)', '리브소나타 시가',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등을 개최했다. 연말까지 11월 29일(토)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2월 4일 창립40주년 기념 '메시아 연주회', 6일 장로장립예배, 20-21일 성탄주일예배 등이 이어진다.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8일(금)	한강	한동홀	18:00
11월 28일(금)	서대문	비전홀	18:00
11월 30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11월 30일(일)	일산파주	일산비전센터	18:00
12월 2일(화)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12월 2일(화)	노원	한동홀	18:00
12월 2일(화)	마포	비전홀	18:00
12월 4일(목)	영등포구로	한동홀	18:00
12월 4일(목)	신용산	두란노홀	18:00
12월 5일(금)	찬양사역	비전홀	18:00
12월 5일(금)	가정사역	한동홀	18:00
12월 5일(금)	성동광진	시온홀	18:00
12월 5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8:00
12월 7일(일)	특별한초대	순형홀	17:00
12월 9일(화)	강서	시온홀	18:00
12월 9일(화)	이촌	한동홀	18:00
12월 9일(화)	양천	비전홀	18:00
12월 9일(화)	동작	두란노홀	18:00
12월 9일(화)	여의도	정곡빌딩 4층	18:00
12월 11일(목)	중종로	한동홀	18:00
12월 11일(목)	용산	비전홀	18:00
12월 11일(목)	OCC	두란노홀	18:00
12월 11일(목)	이수	시온홀	18:00
12월 12일(금)	서빙고	시온홀	18:00
12월 12일(금)	S브릿지	두란노홀	18:00
12월 12일(금)	강촌	비전홀	18:00
12월 12일(금)	성북	한동홀	18:00
12월 13일(토)	김포	비전홀	19:00
12월 13일(토)	북누리	북누리센터	18: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5일(화)	강남A	온유홀	19:00
11월 25일(화)	서초B	기쁨홀	19:00
11월 27일(목)	경기A	화평홀	19:30
11월 27일(목)	도곡	드림홀	20:00
11월 28일(금)	분당A	화평홀	18:00
11월 28일(금)	송파A	온유홀	19:30
11월 28일(금)	강남E	드림홀	19:30
11월 28일(금)	분당B	기쁨홀	19:00
11월 30일(일)	하모니	두란노홀	16:30
12월 2일(화)	서초A	온유홀	19:00
12월 4일(목)	송파B	화평홀	19:00
12월 4일(목)	과천의왕	온유홀	18:30
12월 4일(목)	서초C	드림홀	19:30
12월 5일(금)	양재B	화평홀	18:00
12월 5일(금)	서초D	온유홀	19:30
12월 13일(토)	강남D	기쁨홀	15:00
12월 13일(토)	푸른누리	목상의 집	11:00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8일(금)	부천 사랑	비전홀	20:00
11월 28일(금)	부천 화평	본당	20:00
11월 30일(일)	부천 희락	비전홀	16:00
12월 4일(목)	수원 동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19:00
12월 5일(금)	수원 서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20:00
12월 6일(토)	수원 남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10:00
12월 13일(토)	수원 북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13:30
11월 28일(금)	대전 동누리	비전홀	19:30
11월 28일(금)	대전 서누리	본당	19:30
11월 28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본당	19:30
12월 3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19:30
11월 30일(일)	평택 연합	본당	14:00
11월 28일(금)	인천 사랑	소망홀	20:00
11월 28일(금)	인천 충성	본당	20:00
11월 28일(금)	인천 희락	기쁨홀	20:00
11월 28일(금)	강동 동서울B	본당	20:00
11월 28일(금)	강동 동서울C	사랑홀	20:00
12월 5일(금)	강동 동서울A	본당	20:00
11월 22일(토)	양지 서누리	박모세홀	16:00
11월 28일(금)	양지 동누리	박모세홀	19:00
11월 28일(금)	영종 연합	백향목홀	19:30
12월 14일(일)	제주 연합	본당	10:00

'Beautifully Happy'

예수 발달장애인 화가 정기 전시회

예수 발달장애인 화가 정기 전시회가 'Beautifully Happy'를 주제로 열린다. 11월 26일(수)부터 12월 1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마에르 제3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발달장애인 화가 22명이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일상에서 발견한 소중한 순간들을 다채로운 색과 감정으로 담아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까지 한다.

문의: 02-985-3609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장로칼럼

생명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하여

양웅 장로
(이수공동체)

미프진(미페프리스톤 계열) 같은 약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전 세계 75개국 이상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한 낙태를 ‘편의’나 ‘여성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는 쉽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무거운 일이다. 태아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생명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 윤리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에 관한 임신 주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까지 담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야 한다. 과연 우리 국민은 생명윤리의 중대한 전환에 대해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가졌는가? 그러한 방향에 동의한 적 있는가? 국민적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입법자나 특정 단체의 입장에 따라 추진된다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태아를 생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나아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이 타인의 생명,

곧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기결정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이라는 명목은 때로는 생명을 쉽게 배제하거나 희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진정한 존중은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임신 전후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실질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비밀출산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입양 및 위탁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생명과 인권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4년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도’는 임산부가 신원을 비공개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출산 이후 친권 포기 또는 복귀에 관한 법적, 사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사례다.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가 협력해서 생명 존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경은 태아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생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렘 1:5). 우리 사회가 약물 낙태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국가 윤리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약물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분명히 알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를 희생시켜야 할 대립 개념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 존중의 원칙 위에 사회와 법이 세워질 때, 진정한 여성 인권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분명한 시대적 사명이다.

권사칼럼

마음이 오가는 길목에서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서울에 새 보금자리를 꾸미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마음은 아직 젊는데 어느새 몸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어쩌다 서울 나들이하면 하루 걸음에 시골을 오르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거운 생각이 든다. 모처럼 와도

돌아갈 버스 시간에 맞춰 종종걸음을 쳐야 하고, 자주 몸이 병원을 찾게 되니 거처가 절실했던 차 3층의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다시 서울 입성을 하기로 했다.

서울 집이 세컨하우스가 되다 보니 최소한 불편을 모면할 정도의 가재도구를 준비하는데도 마음과 몸이 분주하다. 문밖만 나가면 온갖 편의시설이 즐비한 도심의 문화에 고됐던 허기를 채우며 포만감을 느낀다. 셋째 금요일, 대학 동기들과 함께하는 ‘금요산책’ 날이다. 가까운 올림픽공원에서 모인다. 어디서나 어르신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러운 나이지만, 여기 오면 초록이 동색이 되는 생기로 나이를 잊는다. 모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허락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다. 이곳에 모이면 모두 환한 얼굴로 반긴다. 더러는 졸업 이후 처음 보는 얼굴도 있다. 학교 때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눈만 마주치면 다 십년지기 되어 말을 트고 가까워진다. 잘 된 동창들 만나고 오면 배가 아플 나이도 지났다. 서로 시새울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다. 세월이 가져다준 평준화가 주는 마음의 여유에 그저 눈길만 스쳐도 정이 솟는다.

이번 만남에는 교통사고와 병고로 2년여 투병 생활을 하다가 기적같이 회복되어 새 삶을 경험한 두 친구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한 친구는 교생 실습 때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던 돈독한 인연으로, 55년 만에 만났는데도 얼굴이 낯설지 않고 이름이 떠올랐다. 가물거리는 추억을 되살리며 반가운 해후를 했다. 여전히 고운 미모의 그녀가 그리 오래 병상에 누워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이라 얼마나 고마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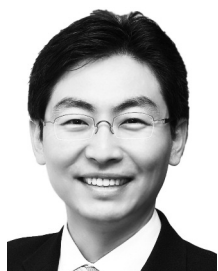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공원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여름이 지나간 흔적이 남은 색바랜 푸르름이 또 다른 계절의 순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의 입질이 시작된 공원의 빛깔에 어쩐지 애릿한 가슴이 된다. 가까운 도심에 이렇듯 아름다운 공간들이 숨어 있었다니.

이 친구 저 친구의 배품으로 떡이며 간식이며 점심까지 넉넉한 인심에 입이 호사했다. 예쁜 복주머니에 포장된 거울을 나눠주는 친구의 넉넉한 마음도 가슴에 담았다. 나이 든 친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리라. 흥시처럼 무르도록 익어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 단체 대화방에 가끔 올리는 글 덕분에 어느새 동기 일보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내 글에 공감하며 열심히 애독한다는 사실 없는 친구들의 인사말에 고맙고 글 쓰는 보람이 느껴진다.

마음이 머무는 길목엔 늘 따스함이 흐른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만큼 생기로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계절을 얼마나 더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면 마음도 젊어진다. 날마다 젊은 날로 채우며 그렇게 익어가자.

어느 날 더 좋은 곳으로 부름을 받는 날, 마지막까지 쓸쓸히 혼자 남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환송을 받으며 미련 없이 안녕하며 떠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려니. 될수록 중간 쯤 내 번호가 걸렸으면 하고 바라본다. 인생의 거울 앞에 서서 벗들이 있어 그 따뜻함에 감사하다. 모쪼록 만날 수 있을 때 자주 만나고, 오래 오래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 공동체)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득한 이른 시간임에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기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이는 밤새 씨름한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어떤 이는 습관적으로 오기도 한다.

그 이유가 어떠한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영혼들이다.

양재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설교는 짧고 간결하다. 무엇보다 설교 이후 세 번의 기도시간이 압권이다. “주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함성에 마귀가 떠나가고, 믿음이 샘솟는다. 침묵 기도, 묵상기도, 향심기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성도들이 한데 모여 크게 기도하는 것만

큼 간절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는가 보다.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통성기도를 ‘코리안 기도’라고 부른다. 영미권 교회는 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문장으로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는 큰소리로 ‘합심기도’를 선호하다 보니 ‘코리안 기도’라고 하는 것 같다. 한 외국 선교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나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나요?”라고 묻은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 간절함의 강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간청기도를 강조하시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영혼의 막힌 것들이 풀립니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 단상이 다른 곳보다 높아서 아래에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처럼 보인다. 이곳에는 여러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신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분, 서서 벽을 잡고 기도하는 분, 큰소리로 ‘방언기도’ 하는 분 등 각자의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신다. 한 번은 그 모습에 감동해서 매일 방언으로 서서 기도하시는 분을 인터뷰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한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나요?”라고 여쭙보니 “저녁 적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집사님 남편이 “여보, 그만 기도하고 가자”라고 하셔야 마무리를 하신다. 막지 않으면 온종일 기도하실 분 같았다. 내 눈에 그 집사님은 ‘양재동 여선지자’로 보였다.

시대가 악하고 미래가 어두운 현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

6~70년대 보릿고개 시절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외치며 기도에 전념했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표어가 떠오른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논밭의 개구리 소리처럼 정겹고 아름답게 들린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로를 경험했다. 눈물이 흐르고,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이 천사처럼 보였고, 강대상과 파이프 오르간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예배당을 나왔더니 양재동의 전경이 펼쳐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름이 뽀렐에서 본 새 아침의 태양이 바로 저것이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새벽기도회 참관기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해서 다락방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 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 선교사 포함).

3) 편지 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안지역 예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현장에서 흘린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들로 아름답게 맺혀갈 것을 믿으며, 손을 모으는 마음으로 작지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4) 선물 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송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해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서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의 대상은 고3 및 12학년(2007년 이후 출생)까지입니다.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문구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완구, 옷,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과자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서적,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하기 바랍니다(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 보안지역에 선물을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하기 바랍니다.
* 보안용어 안내: 선교사님→선생님, 기도→손모음(노래), 하나님(예수님)→윗분(Оте.Сын.Д.и.М.), 교회→회사, 공동체→부서, 사역→업무 등
- 2) 보안지역 안내
- ① 공산권: 중국, 베트남
- ② 이슬람권: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서아프리카-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 ③ 힌두교권: 인도
- ④ 불교권: 미얀마, 라오스
- ⑤ 각 공동체에서는 선교사님과 소통해서 선교지 주소로 선물을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02-3215-3208, ov2000@gmail.com

5. 우체국 요금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나 대표

전화 1588-1300(발신자 부담)으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국제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031-336-1042
온누리M미션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031-491-9650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16	02-796-9700
더멋진세상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정금빌딩), 6층	02-2271-2246
모퉁이돌선교회	(0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02-796-8846
바울선교회	(54308)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4길 30	063-254-8418
빌리온선교회	(087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층	02-879-1191
알타이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선교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703호	031-424-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한성교회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CC	(03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 1가길 2-8 한국대학생선교회	02-397-6200
FMnC선교회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5 양재빌딩 2층	02-848-6251
GBT(성경번역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4층 406호	031-421-5324
GMF(한국해외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3	02-2653-4270
GMP(개척선교부)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길 25	02-337-7191
GMTC(한국선교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금학동 세종빌딩)	041-852-1040
GP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문정동)	02-443-0883
HOPE선교회	(0879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54-14 지하1층	070-4006-5300
InterCP	(37240)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영남제일로 4496 BTJ열방센터	070-8787-8800
Interserve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31-778-7931
MCF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9길 68, 202호	02-521-0791
OM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031-698-2372
OMF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언빌딩 2층	02-455-0261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	(072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 조광빌딩 301호	02-815-4052~4
한국WEC국제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 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7나길 14 4층	02-3142-0907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품 같은 사랑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막 10:16).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옮겨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해 주는 바로 그 마음으로 공동체가 책임 맡아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B국은 소포를 찾을 때 우체국에 가서 그 나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내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지고 찢어진 박스에서 정성스럽게 쓴 성탄 카드 한 장과 B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과자, 학용품과 함께 팔려 들어온 다락방,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불편함이 오히려 온 가정의 기쁨이었습니다.
2025년 성탄 선물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살려서 안고 축복기도하신 것 같이, 선물을 준비한 분들이 그 선물을 받을 선교사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신 다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예수님 품 같은 따뜻한 한 해를 경험하는 모든 다락방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박영환 선교사(2000선교본부)

선교사 자녀 간증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살 때 아빠 엄마를 따라 케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친구들과 온종일 잔디에서 뛰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케냐는 날씨가 좋고 자연이 아름답고, 동물도 많습니다. 얼룩말, 원숭이, 기린, 코끼리를 직접 볼 때 신이 났습니다. 또 제 생일이면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케이크로 파티를 했던 때를 떠올리면 행복합니다. 명절에는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만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기뻐했던 기억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에 걸려 열이 많이 나고, 얼굴이 부어서 괴물 같아 보였던 제 모습과 유치원에서 옷장에 갇히는 벌을 받는 일은 정말 괴로

웠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도, 한국에서도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유하 학생(권태남/김미연 자녀, BEE KOREA)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문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 변대식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 도유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민리신길 613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 장정택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 시카고 ●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 7-64 JAPAN ● 요코하마 ●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 WA-KU SHIMAI-CHO61 EHW A DAIAMOND 2F ● 교토 ●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변대식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유환 노규석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래유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럼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온 박성B 박성진 박정중 박철용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승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성 신경훈 신대중 신병진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이새무영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성하 유진아 유현복 윤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우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지훈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영선 정현석 정희성 제용준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혁중 최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해를도김 하원희 황문규 황신영 황유일			
● 전도사(전임) 김한솔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현우 임동현 최강호 홍근영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해미 조오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 국내파전 목사 고병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도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경남 서영철 심은섭 생애뉴스 양현수 위병배 에릭 마이클스텔스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정진모 제인랑 존해인 최선재 최정현 허효정 황원선			
●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진 권애람 권평화 권혁성 김기호 김경배 김기대 김동우 김미리 김민수 김소망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광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진 김태현 김하은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화복 나가노 마사토 남 해 네우베네 피터 백용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영범 송태경 송유진 송일식 송재길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동현 안성영 양준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안영 유재천 유 형 유지홍 윤성열 유기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성 윤영오 윤원진 윤영주 이강범 이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복희 이상수 이만식 이무용 이백용 이상기 이성덕 이우영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근 이종길 이종수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배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삼기 정순봉 정영일 정용화 정운오 정재택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정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화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환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장수 최중길 최희영 편무옥 최한수 최영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중대 한창적 한형식 함공식 함순호 함일영 함광수 함종일 함종철 홍기영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욱 황용오			
● 사무장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훈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영주 광병철 광진식 곽희준 구자엽 권순형 권오현 권오섭 권오영 권혁은 금세중 김경도 김경태 김광하 김광훈 김기성 김기영 김기영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병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환 김정원 김정민 김정훈 김정민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성 김정원 김철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환 김종호 김준규 김준용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창식 김정원 김철민 김정훈 김정민 김현주 김형식 김형준 김화선 김화수 김요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병환 남상길 남윤창 남정진 남주인 노경한 노기훈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동원 박용식 박용익 박일범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지완 박혜한			
박 현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배병태 서달석 서명수 서병환 서성현 성광재 성주명 손기철 송준환 손기태 송기선 송동섭 송준환 송기현 신기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현보 신길섭 신천보 심효무 심희도 안상현 앙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종식 양현열 오 병 오범규 오상록 오승택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훈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신현보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남식 이동욱 이병국 이봉은 이삼형 이상도 이상욱 이상준 이상철 이상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만 이승배 이진준 이영근 이영복 이창한 이우영 이원장 이은일 이안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준 이창주 이흥우 이종철 이진택 이치우 이훈우 이태원 이학일 이혜달 이흥선 이 훈 임상범 임정원 임재남 임태원 임호영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문석 장우진 장정식 장영수 장광열 정영원 정재범 정찬희 정태경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원만 정용화 정일영 정재범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준 조성태 주재환 최석민 최성안 최용일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성진 하준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함정철 허 경 허대평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이택 홍충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용룡 정광택 정상근 지성한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트마크 박자인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중훈 추고명 합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경 김정환 김지형 김 찬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성규 이병근 오 병 오범규 오상록 신준환 오승택 오지훈 원이주 유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병근 이병철 이수정 이서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숙 조의현 전병근 정성미 정필희 채미란 최경원 최영민 최홍익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라 매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영 이재정 이종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현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은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종훈 박찬민 박한식 박현욱 박요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송정욱 손미경 송진선 신기원 심제현 심형진 안성진 양지범 엄영기 우윤상 유병중 유영순 이정호 이도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주영 이정주 이정원 이형근 장시자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철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재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안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대열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정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김현중 남 영 노홍규 백남인 백호현 서인택 신승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이정기 이광철 정진안 한덕중 홍규석			
● 사무장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고대라 김승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한재 송정래 송태민 신술문 심상일 여충필 유행민 이관표 이상현 이수성 이승규 이은창 이운상 송정래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진 조윤휘 최경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 명예장로 김용식 엄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홍수 윤정근 윤한돈 인성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소천
11/13(목) 강남B 남미애 성도 모친상 고 윤태원 11/14(금) 송파A 정윤석 성도 부친상 고 정기영 11/14(금) 강남C 고선균 성도 모친상 고 김복송 11/16(일) 서빙고 고 유석인 권사 11/17(월) 이촌 남희영 집사 부친상 고 남기환 11/18(화) 이수이정석 집사 부친상 엄지영 성도 시부상 고 이봉우 11/18(화) 동대문중앙 감형석 집사 모친상 김은애 권사 시모상 고 윤순봉 11/19(수) 이수 김수진 성도 시부상 고 홍홍길 11/19(수) S브릿지 김정희 성도 부친상 고 김탁 11/20(목) 한강 매향원 권사 모친상 김동우 장로 병모상 고 정춘자 11/20(목) 서대문 서형정 권사 모친상 이중민 집사 병모상 고 김계숙 11/20(목) 용산 김은숙 성도 모친상 고 박순득 11/20(목) 양천 정연우 성도 모친상 문면이 성도 시모상 고 장주식 11/21(금) 고 오양환 성도 11/21(금) 한강 이혜경 집사 남편상 고 김종석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0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마음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여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 르신) 내용: 이마음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작업: 이마음 자격증 소지자 일시: 팔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 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갈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여객방송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작업: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인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 사용하세요. 온누리 교회 현금온라인 안내 입금초과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아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미썬 자동차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한터공동체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모집: 피아노 반주자 1명 시간: 매주일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오은철 간사(010-7107-5270)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주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입단 문의: 김유미(010-3923-0416)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6년 1월 28일(수)~2월 5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ackr)에서 초빙광고 참조